**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창립36주년 기념 선교사경회:** 5월 11일(토)-12일(주일) 16시, 예배당

강사: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원로), 주제: 세계화 시대의 이민교회

**교회창립기념 찬양대 자선콘서트:** 5월 18일(토) 17시 Mutterhauskirche, 노인성장애한인돕기

**ㆍ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ㆍ5월 5일 주일:** 어린이 주일, 연합, 유아세례, 새가족환영

**ㆍ매일성경 5,6월호:** 배부-김성희

**ㆍ청소년수련회(JC 캠프):** 4월 22일(월)-25일(목) 3박4일, [www.jccamp.de](http://www.jccamp.de) 참조

**ㆍ어린이성경학교 1차 준비모임:** 4월 27일(토) 에센한인교회당 Alfredstr. 215

**ㆍ생일:** 박성준, 박성희, 이윤석, 신재혁

**ㆍ손교훈 목사:** 예장유럽선교대회(4/22-25, 슈미텐) 참가

**◆말씀일기 일정**

일/마28:1-20 월/아가1:1-2:7 화/아2:8-17 수/아3:1-11

목/아4:1-5:1 금/아5:2-16 토/아6:1-12 일/아6:13-7:10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57독, 송인선 권사 1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4월 21일** | **4월 28일** | **5월 5일** | **5월 12일** |
| **예배기도** | 김한진 | 박상훈 | 석호선 | 권순아 |
| **말씀일기** | 김성희 | 신상희 | 석혜진 | 황정은 |
| **안내위원** | 한상철, 예배부 | | 정기승, 예배부 | |
| **헌금위원** | 유근임, 정규선 | | 박희영, 정수연, 예배부 | |
| **봉헌특송** | 청소년부 | 넓은 나라 | 유초등부 | 뒤메 나라 |
| **애찬봉사** | 밥상 넷 | 밥상 다섯 | 밥상 여섯 | 밥상 일곱 |

**36-16호 2019년 4월 21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14:27)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재용 목사** HP. 0157-5346 6942

**교육/ 신동철 목사** HP. +41-77-816-5678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부 활 주 일 예 배(Ostersonntag)**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참회기도/Buße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134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160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 김한진 장로  김성희 사모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시118:5-7, 요20:19-21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내 편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165장 …………………………….…  성찬식/Abendmahl………………………….…………………………….………...… 집례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인도자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파송찬양/Lob …………… 선한 능력으로(Von guten Mächten)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그 길 앞에서’**  신동철 목사 글 **◆**

지난 주일, 청년들과 부퍼탈 바르멘(Wuppertal-Barmen)에 있는 Gemarker Kirche에 방문했다. 이곳은 1934년 독일교회가 나치정권과 결탁하여 악마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을 당시, 바르멘 선언을 통해 올바른 신앙고백을 했던 곳이다. 당시 독일교회는 적극적으로 나치의 정책에 동조하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악을 저질렀다. 모두가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독일교회는 국가의 기관이 아니며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교리적으로 틀렸음을 천명했다. 이 선언을 통해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가 세워졌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방문하기 위해 청년들은 2주간 바르멘 선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배웠다. 비록 주일예배가 끝난 후라 문이 닫혀 있어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직접 교회 앞에 서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나치수용소로 보내졌다. 바르멘 선언을 작성했던 칼 바르트는 교수직에서 쫓겨나 고국으로 추방되었고, 본 회퍼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관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과연 이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를 거스를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훨씬 더 편한 길은 너무나도 많다. 그냥 대세에 따르면 된다. 악한 정책일지라도 당장 나에게 빵을 하나 더 주는 정책을 지지하면 오늘 하루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선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일이다. 나를 위하여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고되다. 역사에 남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내 마음 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나의 목표가 무용지물이 될 지라도 나는 ‘정의’를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들이 택했던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이 갔던 외로운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 길 앞에서 내 자아는 여전히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